현불 논단

# 불평등, 기후위기 가속화 원인



민정희
국제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총장

**국가경쟁력 4위에 빛나는 위상**
**여전히 국제사회선 '기후 악당'**
**기후대응지수 64개국 중 59위**

**가장 영향력 있는 IPCC보고서**
**30년만에 처음으로 '정의'언급**
**기후변화 대응의 장애요인으로**
**불평등·부정의·자본주의 꼽아**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
**세계 기후정책에 역행 우려돼**

한국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K문화, K방역, 한국의 경제력 상승과 촛불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등이 요인이다. 스위스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4위로, 프랑스와 일본을 앞섰다. 요샛말로 단군 이래 가장 잘 나가는 시기이다. 반면 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연구소가 국가별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202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59위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에서 왜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 각국의 정책 수립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온 것은 'IPCC평가보고서'이다. IPCC 평가보고서가 나오기까지 1천여 명에 달하는 저자와 1천여 명의 기여저자, 1천여 명 이상의 검토자가 참여한다. 평가 대상 논문만 3만 편 이상으로 방대하다.

이는 양주에서 10여 년을 억류되어 있던 구마라집이 마침내 장안에 들어와 역경사업을 펼치던 모습과 비견된다. 〈법화경〉 번역에는 문도 8백여 명과 사방의 의학 승려 2천여 명이, 〈범망경〉 번역 등에는 각각 3천여 명의 승려가 모였다. 당대 비교 대상이 없었던 역경 프로젝트처럼, IPCC평가보고서가 전 세계 학계, 정부 및 산업 부문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표준 참고자료로 삼는 이유와 권위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기후운동은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이 경제 성장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인과의 도리에 따라, 역사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국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후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1990년의 첫 보고서부터 2014년의 5차, 2019년의 특별보고서에 이르기까지 IPCC보고서에 '정의(justice)'가 언급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2월 28일 발표된 약 4천 페이지에 달하는 제6차 제2실무그룹 보고서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과 취약성〉은 눈을 의심할 정도다. '정의'가 670회, 불평등 446회, 자본주의 등의 연관단어만 거의 2천여 회에 이른다. 기후변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자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를 줄이는데 장애요인으로, 불평등과 부정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적시하고 있다. 나아가 끊임없는 성장중심의 발전 담론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행복, 좋은 삶(buen vivir), 평등을 강조하는 발전 담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의 변화는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흐름에 맞지 않은 경제성장 논리와 기업이익만을 옹호하는 논리만으로 기후정책의 발목을 잡기에는 IPCC보고서의 파도가 높고 깊어 보인다.

논란이 많은 GDP성장론의 관점으로만 접근해도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 경영(social), 윤리경영·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ESG' 평가기준이 낮은 기업의 주식과 채권은 매입하지 않는다.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화석연료 매출이 25%를 넘는 기업은 매각하고 있다. 2020년 2월 네덜란드 최대 공적연기금운용공사(APG)가 석탄 사업을 지속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에 투자한 6천만 유로(약 8백억 원)를 회수했다. 지속가능한 생태·윤리경영을 하지 않은 기업은 자금 투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1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이 세계적인 흐름과는 역행할 것으로 전망되어 더욱 우려된다. GDP성장의 꿀물, 단군 이래 최고라는 찬사에 빠져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한낮의 단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社說

# 간화선 대중화 원년 되길

전국 선승과 불자들이 모여 마음 속 부처를 체험하는 간화선 대법회가 4월 20~26일 경북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에서 열린다. 한국불교 전통수행인 간화선은 대중화라는 중대한 시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선지식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화선의 요체를 설명하는 간화선 대법회가 열리는 것이다.

간화선 대법회는 2013년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미뤄져 3년 7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간화선 대법회에는 제15대 종정 성파 스님을 비롯해 아흔 평생 처음으로 산문 밖에서 설법하는 지유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7명이 나선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회가 열리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국민 참선방'으로 새로 문을 여는 국제선센터로 2015년 전국선원수좌회의 고우·적명 스님 등 우리나라 대표 선승들이 봉암사에 모여 건립을 결의한 지 7년 만에 문을 열게 됐다. 세계명상마을은 매달 한 차례씩 9일 화두 명상 집중수행과 평일 선스테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청년희망캠프도 갖는다.

한국불교는 조사선 전래 1200년을 맞았지만 정작 간화선 대중화가 요원한 실정이다. 코로나19로 각 가정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마음공부, 수행에 대한 요구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조계종 대표수행법인 간화선 대중화를 부르짖지만 정작 위빠사나를 비롯해 명상에도 밀리는 현실이다. 이번 간화선 대법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이들이 간화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을 토대로 활발한 수행문화를 이끌길 기대한다. 선 수행의 대중화의 원년으로 2022년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 첫 종단본 '불교개론' 환영한다

조계종 교육원이 첫 종단본 〈불교개론〉을 출간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교육원은 새로 편찬된 〈불교개론〉을 올해 1학기부터 학인 스님들의 교재로 활용한다. 향후 교육원은 대승불교 전반을 다루는 〈대승불교 개론〉, 계율 개론서인 〈계율과 사회윤리〉 등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교 개론서는 많이 있다. 하지만 교학 중심으로 어렵거나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불교 초심자에게는 개론서가 더 어려운 경우도 왕왕 있어왔다.

이런 지적은 교육 일선 현장에서도 있었다. 제8대 교육원은 승가교육 발전 방안을 위한 교육교역자 스님 간담회를 2년여 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교역자 스님들은 새로운 〈불교개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이번에 새로 발간된 종단본 〈불교개론〉은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로 시작해 불교 사상·역사 전반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중학교 졸업자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썼다. 또한 한글세대를 위해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한글로 풀어 쓴 것도 눈길을 끈다. 승가공동체와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래 승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를 한 챕터에 걸쳐 기술한 것도 이번 개론서의 특징이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불교 교육은 필요하다. 새로운 종단본 〈불교개론〉이 던지는 화두는 바로 '눈높이 교육'이다. 일방통행식 교육은 효과도 떨어지고 깊이가 없기 마련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보이는 쌍방향 교육 행보가 시대에 맞는 불교교육의 지남(指南)이 되길 바란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③ 드라마 '소년심판'

# 소년은 어른 행동 따른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장르는 '휴먼 법정 오피스극'이다. 장르에 휴먼이 붙는 것은 주제가 휴머니즘으로 귀결되기 때문이고, '법정 오피스'이 붙은 이유는 소년법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심은석 판사가 지방법원 소년부로 부임하면서 시작된다. 심은석 판사가 소년범을 혐오하는 이유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죽었으나, 그 범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년범들에게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심은석 판사의 모습에서는 법이 지닌 엄벌주의를 읽을 수 있는 반면, 소년원 출신이기에 소년범들의 마음 속 상처를 보듬어주려고 하는 차태주 판사의 모습에서는 법이 지닌 교정주의를 읽을 수 있다.

형벌의 기능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사회화에 있다고 보는 교정주의와 달리 엄벌주의는 엄벌만이 범죄자의 재발을 막고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엄벌주의의 사상적 근간은 토머스 홉스가 〈라비이어던〉에서 기술한 아래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의, 공평, 겸손, 자비 등 요컨대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대하라'고 하는 자연법 자체는 어떤 권력의 위협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 칼이 없을 때 사회적 약속은 말 뿐인 것에 불과하며 사람을 보호해줄 힘이 없다."

그래서 심은석 판사는 극중에서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라는 대사를 하는 것이다. 극중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들은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등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서 리얼리티를 더하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 드라마의 단골메뉴인 신파적 감성을 내세우지 않는 게 특징이다. 소년범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되 소년범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근원적 이유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임을 설득력 있게 묘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미덕은 두 가지다. 첫째,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에피소드들을 통해 교정주의에 방점이 찍혀 있는 소년범들에 대한 법체계가 옳은지 회의를 갖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 소년범들의 범죄는 근원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사견이지만 필자는 에피소드 중 문광고 입시비리 사건을 다룬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강원중 부장판사가 자신의 아들이 입시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면서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대목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을 떠올리게 한다.

"성경을 읽느라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심은석 판사의 말은 그 어떤 대의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 방법이 그릇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소년범죄의 해답은 "바퀴가 수레 끄는 소의 발을 따르듯" 소년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따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리라.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